

영광·함평 + 장성, 담양·곡성 + 구례 거론

15대 국회는 IMF 구제금융의 영향에 따라 16대 국회의원 의석수를 273석(비례대표46석)으로 줄였다. 2000년 출범한 16대 국회는 17대 국회 의석수를 26석 늘린 299석(비례대표 56석)으로 확정했다. 인구 상하한선은 10만5천~31만5천으로 정했다.

현재의 17대 국회가 당장 국회의원의 의석수를 늘이거나 줄일 수 있는 별다른 요인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정치권 전반적인 평가다. 이에 따라 17대 국회에서는 지난 16대 국회에서 정한 인구 상하한선을 소폭 조정하는데 그칠 것이며 국회 의석도 현재 299석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럴 경우, 광주에서는 인구가 35만5천여명이 넘는다는 광산구가 현재의 단일 선거구에서 2개의 선거구로 분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주에서 1개의 선거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영광·함평과 강진·완도의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을 지키지 못하

전남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어떻게 여수시 現 복수 선거구 유지될 수도 강진·완도, 인근 지역구 통합 불가피

고 인근 지역구에 편입되거나 타 군을 편입해 새로운 지역구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단일 선거구 상한선(31만5천명)에 진입한 여수시(29만8천여명)의 경우, 1개의 선거구로 통합될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여수시의 두개의 선거구가 모두 단일 선거구 인구 하한선을 넘는다는 점에서 현 상태대로 복수의 지역구가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에서는 광주의 지역구가 1개 늘고 전남의 선거구가 1개 줄어들어 광주(8개)·전남(12개)의 지역구는 17대와 같이 20곳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지역구 조정이다. 지난 16대 국회에서는 박주선 의원(보성·화

순)이 수감되어 있는 틈을 이용, 단일 선거구 유지가 어려운 고흥과 나주에 각기 보성과 화순을 붙여 해결했다. 주인없는 지역구를 분할한 것이다.

그러나 17대 국회에서는 상황이 북잡하다. 각기 두개의 군으로 형성되어 있는 두개의 지역구가 단일 선거구 인구 하한선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영광과 함평에 장성을 붙이고 담양·구례·곡성을 단일 선거구로 만들자는 얘기가 거론되고 있다. 광양시는 구례가 없더라도 단일 선거구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효석 의원 측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몹

시 불쾌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강진·완도는 답답한 상황이다. 해남, 영암, 장흥 등 인근 지역 군을 붙인다면 전남지역 모든 선거구가 다 형크러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다.

순천시와 목포시를 거점으로 전남 지역 선거구 지도를 다시 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자체적인 인구 증가다. 그러나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박상천 전 의원이 고흥군 재경향우회에 호소, 단일 선거구 하한선 돌파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실패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18대 국회에서는 지역구도를 극복하고 지역민의 의사를 선거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도시와 농촌지역의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광역시 이상 대도시는 중선거구제, 소도시 이하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도농 혼합형 선거구제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일보 2007 테마 이젠 實利다

<14>대학 교수들부터 경쟁력을

‘교수직=철밥통’ 인식 깨고 자기개발 연구역량 높여야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 지닌 지식·재능·열의 등이 교육의 성과를 좌우한다는 의미로, 모든 교육과정

에 통용되는 말이다. 흔히들 광주·전남지역 대학의 저조한 학생 취업률을 빚대 지방대생들의 경쟁력이 약하다고들 한다. 이는 달리 말하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경쟁력이 그만큼 뒤처진다는 얘기다.

대학 경쟁력이 지역발전 좌우

더욱이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아 대학의 연구역량이 지역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반이 되면서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가 중요시되고 있지만, 지역 교수들의 연구역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각종 지표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대학 전임교수의 박사학위 소지율(2004년 기준)은 광주 85.16%, 전남 84.89%로 모두 전국 평균 87.17%보다 낮았다. 특히 사립대의 경우 광주 77.13%, 전남 76.66%로 전국 사립대 평균인 84.78%에 크게 못 미쳤다.

논문·저서 등 전국평균 못미쳐

교수들의 각종 연구실적 역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전남지역 대학 교수 1인당 국내·외 학술논문 수는 1.44건으로 전국 평균 1.96건보다 적었다. 특히 교수 1인당 국외 학술논문 수는 0.14건으로 전국 평균 0.39건보다 크게 적었다. 교수 1인당 저서 수도 0.15권으로 전국 평균 0.19권에 미치지 못했다.

광주지역의 경우 교수 1인당 학술논문 수는 2.94건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지만 교수 1인당 국외

학술논문 수는 0.26건, 교수 1인당 저서 수는 0.11권으로 각각 전국 평균보다 적었다. 학교 밖에서 연구비를 지원받는 교수 비율도 광주(47.54%)와 전남(57.84%)이 전국(61.98%)보다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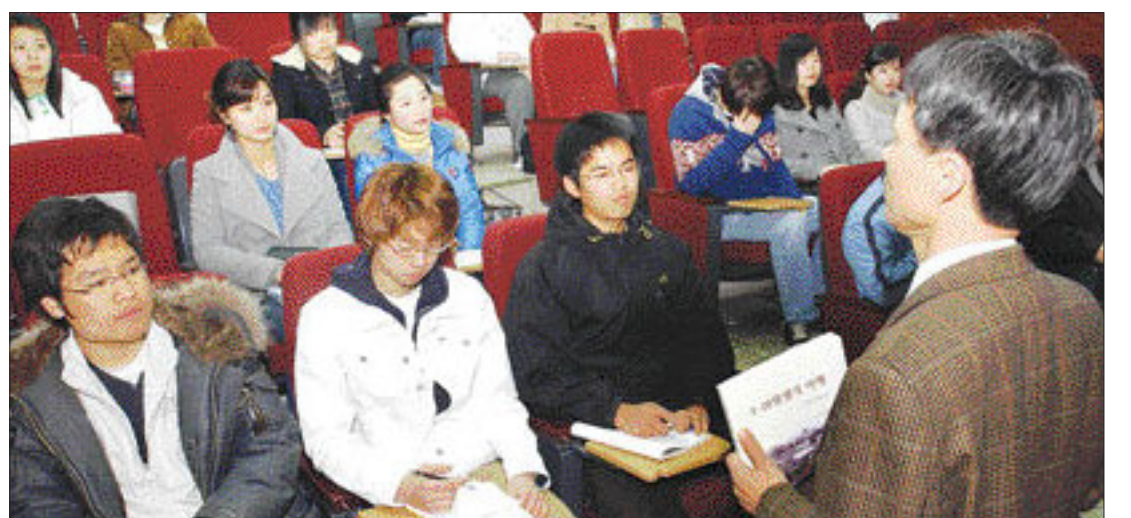
각종 연구실적도 전남대와 조선대에 편중된 양상이다. 비교시점이 다르긴 하지만, 한국학술진흥재단의 2005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 연구활동 실태조사 결과 전문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분야에서 전남대가 13위, 조선대가 19위, 저술 실적 분야에서는 전남대가 18위, 조선대가 15위를 차지하며 각각 상위 20위안에 들었다.

광주·전남지역 20개 4년제 대학 전남대와 조선대를 제외한 나머지 18개 대학들이 극히 저조한 연구실적을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좋은 실적을 거둔 전남대와 조선대의 수치가 포함되면서 그나마 전체 평균치가 올라갔음을 시사해 하는 대목이다.

“정부 지원금 일부대학에 편중”

이와 관련 국회 교육위원회 이경숙(열린우리당) 의원은 ‘대학연구실태와 개선방안’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학은 연구비의 대부분을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현재처럼)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대학의 연구능력을 일부 대학과 지역에 편중시킨다면 지역 대학들의 인력양성과 사회발전 도모에 큰 장애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학계에서는 그러나 지난해 조선대의 승진 대상 교수 102명 가운데 43명이 연구실적 부진 등으로 승진 탈락한 예를 들며 “교수들 스스로 ‘교수직=철밥통’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부단한 자기개발과 학문연구에 힘을 쏟아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교수들의 변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아 대학의 교육·연구기능이 지역 발전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된 요소가 되면서 대학 교수들 스스로 연구 역량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광주일보 사진진>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대표, 손학규 전 경기지사 등 대선 주자들이 25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스

경선준비위 검증작업 착수

지난 21일 ‘김유찬 2차 기자회견’을 정점으로 한나라당의 검증공방이 일시 소강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양대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 캠프가 검증문제에 있어 확연하게 대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전체적인 기류는 이전과 별반 다를 게 없지만 대응에 나서는 ‘색깔’은 점점 분명해 지고 있다. 양측은 여론을 의식한 듯 검증자료 제출시한인 24일까지 당 경선준비위원회에 상대에 대한 검증자료를 일일 제출하지 않는 등 캠프 차원의 직접대응을 자제하고 있으나 ‘속내’는 판

박측 “진짜 검증은 이제부터다” 李측 “도 지나치면 참는데 한계”

한나라 검증공방 2라운드 돌입

이다.

박 전 대표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청렴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이 전 시장을 계속 자극하고 있으나 이 전 시장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며 ‘무대응’ 전략을 고집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전 시장측의 이 같은 ‘역검증’ 자제 입장에도 불구하고, 검증

공방은 조만간 제2 라운드로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당 경선준비위원회가 25일부터 검증작업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이르면 26일 이 전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를 지낸 김유찬씨의 폭로내용과 관련한 검증대상 및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기에서 박 전 대표가 이날 대선주자 간담회에서 “금품시비나 부정거래 시비에 휘말리면 후보를 사퇴한다든지 금품을 받으면 출당한다든지 규정을 뒤야한다”고 말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제2의 검증공방을 암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측 정두언 의원은 “이미 한풀 꺾인 것 아니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캠프 소속 다른 의원들은 “도가 지나치면 우리도 참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어느 때든 ‘응전모드’로 전환하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는 분위기다.

34

2007년 새해, 새로운 의도와 장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위험부터
또 하나의 광주한의원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운·암·한·공·방·원

직원 채용안내

2007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광주한의원(주)에
간호사, 약사, 방사선사, 의료기사, 행정직원, 관리직 등
다양한 직군에
인원 채용합니다.

직군	필요인원	지원자격	지원기간	지원처
간호사	1명	간호사 2급 이상	3월 1일 ~ 3월 31일	광주한의원(주) 인사팀
약사	1명	약사 2급 이상	3월 1일 ~ 3월 31일	광주한의원(주) 인사팀
방사선사	1명	방사선사 2급 이상	3월 1일 ~ 3월 31일	광주한의원(주) 인사팀
의료기사	1명	의료기사 2급 이상	3월 1일 ~ 3월 31일	광주한의원(주) 인사팀
행정직원	1명	고졸 이상	3월 1일 ~ 3월 31일	광주한의원(주) 인사팀
관리직	1명	고졸 이상	3월 1일 ~ 3월 31일	광주한의원(주) 인사팀

지원서류: 1. 지원서 2. 학력증명서 3. 경력증명서 4. 인적사진 5. 신분증 사본 6. 건강검진결과서 7. 기타 관련 서류

면접: 3월 26일(수) 14:00 ~ 17:00

면접장소: 광주한의원(주) 인사팀

문의: 010-9700-1111

www.khan.co.kr